



“유럽에서 성공하려면 전투적 자세를 길러라.”
허정무 전남 감독이 지난 16일 미디어데이 이후 가진 만찬자리에서 대표팀 감독 시절 직접 발탁한 설기현(28·레딩),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30·토트넘 핫스퍼) 등 ‘프리미어리그 3인방’과의 얽힌 인연과 함께 애정어린 충고를 보였다.

“설기현 ‘여린 마음’ 버려야”

지난 1998~2000년까지 축구국가 대표팀 감독을 지낸 허 감독은 “당시 박지성을 올림픽 대표로 처음 뽑았을 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지성의 출신 학교인 명지대 감독하고 바둑을 뒀서 지는 바람에 데리고 왔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1년 후에 말해 달라’고 했다. 나중에는 누구도 말을 못하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허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3인방 중 박지성을 가장 성공한 예로 들면서 “(박)지성은 자신이 직접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온 기회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올시즌 첫 골도 바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왔다”면서 “유럽 축구는 이처럼 전투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성공하려면 적극적인 공격력 필요”

■ 허정무 전남 감독, 유럽파에 조언

허 감독은 또 설기현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98년 대표팀 감독 부임 이후 설기현을 지켜봐 왔는데, 축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다”며 “무명이나 다름없는 선수를 대표팀에 합류시키자, 또 다시 많은 오해들이 뒤 따랐지만 다행히 그 진가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허 감독은 설기현의 유럽 진출과 관련한 에피소드로 “2000년도 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설)기현이

갑자기 일본팀으로 이적하겠다고 말해 무조건 유럽 진출을 권유했다”며 “그래도 일본 이적을 결심한 것 같아 기현이의 집에 두번이나 찾아가 유럽행을 설사시켰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또 설기현의 ‘여린 마음’을 지적하는 등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허 감독은 “설기현의 성격은 강한 편이 아니다. 한 번 부진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서 “강하고,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본인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진단했다.

허 감독은 또 지난 99년 청소년대표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영표를 발탁하면서 겪은 가슴아픈 사연도 털어냈다.

허 감독은 “이영표를 국가대표로 발탁했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국가대표 감독의 신뢰도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이 빠지기도 했다”며 “이제는 누구도 지성의와 기현이, 영표를 발탁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동국 수동적 자세 바뀌라”

허 감독은 ‘애제자 3인방’에 대한 충고끝에 미들즈브러로 이적을 추진중인 이동국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허 감독은 “이동국이 유럽 축구에 진출하면 초반에는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낼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동국은 주변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스타일인데 유럽축구와는 맞지 않다. 자신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축구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은 무난...러프가 복병

여자월드컵골프 하루 앞두고

김영·신지애 샷 감각 조절

“무난한 코스지만 러프나 벙커 등덕에 잔디를 길게 길러놓아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의 게이 플레이어 골프장에서 열리는 제3회 여자월드컵골프대회에 출전하는 김영(27)과 신지애(19·하이마트)가 16일(이하 한국시간)과 17일 연습 라운드를 하며 샷 감각을 조절했다.

19일 개막을 앞둔 게이 플레이어 골프장은 전장 6천 466야드의 파72 코스로 어렵지 않지만 페어웨이와 그린의 좁고 러프나 그린 주변의 잔디가 길게 자라나 있어 자칫하면 애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두 선수의 분석이다.

신지애는 첫 연습라운드 도중 9번홀에서 고전했다. 티샷을 7번 우드로 친 뒤 5번 아이언으로 두번째 샷

을 날렸는데 벙커 등덕에 볼이 떨어졌다.

러프가 워낙 깊어 볼을 간신히 찾았지만 다시 친 볼이 러프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말았다. 신지애는 “9번 홀 뿐 아니라 대다수의 홀이 깊은 러프를 갖고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신지애보다 8살 많은 언니 김영은 세심하게 코스를 돌아 본 뒤 “그렇게 어렵다고도, 쉽다고도 할 수 없는 코스다. 하지만 전반보다 후반 9개홀이 훨씬 쉽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후반에서 타수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 18번홀은 관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진 홀 같으며 두 선수는 입을 모았다.

파5 홀이지만 458야드 밖에 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두번만에 그린에 볼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린 앞과 뒤에 개울이 만들어져 있어 욕심을 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마지막날 극적인 승부가 이 곳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지애〉



〈김영〉

5세 골프신동 이종보군 이번엔 출신원

스페인 골프계 떠들썩

스페인 골프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소년 이종보(5)군이 이번에는 출신원을 해 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군의 후원인이자 친척인 어수일(61)씨에 따르면 이군은 작년 12월31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갈리시아주 라 코루냐의 토레골프장에서 믿기지 않는 출신원을 기록했다는 것. 이군은 6개홀을 세번 또는 방식으로 치른 18홀 라운드에서 7번째 파3홀에서 어린이용 5번 페어웨이 우드를 휘둘러 80m를 날린 뒤 볼 속으로 집어 넣었다.

유학생 아버지를 따라 스페인으로 건너 간 이군은 작년에 토레골프장 회원들이 참가하는 클럽도너먼트에 출전, 7오버파 61타를 치며 3위를 차지해 또 하나의 ‘타이거 우즈’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어린 나이에 금방 실증을 낼 만도 한데 아직도 골프에 대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이군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TV 중계를 보는



이종보(5·가운데)군이 지난해 12월31일 스페인 토레골프장에서 출신원을 한 뒤 증명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타이거 우즈(미국), 에니 엘스(남아공), 에덤 스콧(호주)의 스윙폼이 رائع하다고 평가할 정도가 됐다.

이군의 실력이 스페인내에서 널리 알려지자 라 코루냐에 있는 사파테이라 골프장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회원 가입 자격에 예외를 두고 이군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어수일씨는 전했다.



이동국 잉글랜드행 이적료 ‘암초’ 봉착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 입단을 추진하고 있는 이동국(28·포항)이 ‘이적료’라는 암초를 만났다.

김현식 포항 스틸러스 사장은 17일 “어제 미들즈브러 구단으로부터 이동국의 영입을 희망한다는 공식 문서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서로 이해가 달라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들즈브러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며칠 안에 이동국과 영입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동국 영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또 “올 겨울 이적 시장을 맞아 팀의 첫 번째 영입 선수가 될 수도 있다. 포항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바란다”며 이동국의 영입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정은 간단치 않다.

미들즈브러와 포항 구단이 이적료에 대해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들즈브러는 이동국이 오는 3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만큼 적은 몸값으로 그를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미들즈브러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은 채 “(미들즈브러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선수의 가치라는 게 있다. 제값을 받고 가길 바란다”며 강경한 모습이다.

김 사장은 “이동국의 대리인에게 최소 150만 유로(약 18억 원)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들즈브러가 계약이 2개월여 남은 선수를 그 만큼의 돈을 내고 데려갈 지는 의문이다. 포항 구단은 ‘선임대 후이적’도 한 가지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

한국 빙상 기대주 이상화

동계U대회 금향한 시험질주

◀ 2007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 출전하는 한국 빙상의 기대주 이상화가 17일(한국시간) 오벌링고토 빙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